



손끝으로 만나는 가족의 온기

정성스런 손바느질로 빚어낸 다섯 가지 가족 지갑 컬렉션입니다.



탄 브라운 카드지갑

클래식한 황갈색 가죽이 세월과 함께 깊이 있는 윤기를 더해갑니다.



포레스트 그린 카드지갑

깊은 숲의 색채를 품어 일상 속에서 차분하고 단단한 멋을 전합니다.



클래식 블랙 카드지갑

균더더기 없는 먹색 가죽과 하얀 스티치가 이루는 정돈된 균형감입니다.



버건디 레드 카드지갑

잘 익은 포도주처럼 그윽한 색조가 일상의 손끝을 우아하게 채웁니다.



네이비 블루 카드지갑

심해를 닮은 감청색 가죽과 함께 당신만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세요.